

제 1 교시

현대 소설

성명

수험 번호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랑하느냐 하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였는가— 알 수가 없다. 자기는 다만 형식이란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요 칠팔 연대로 일찍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다만 어서 형식을 찾고 싶다, 어서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 만나면 기쁘겠다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채는 멀거니 여학생을 보다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부친께서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껏 찾으셨습니까— 별로 사모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예. 그리고 어렸을 때에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되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찌 그리운 생각이나요.”

“그것이야 그렇겠지요. 누구든지 아이 적 생각은 안 잊히는 것이니까. 그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 생각도나시지요?”

영채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예. 여러 동무들의 생각도 나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제일 정답게 나요. 그랬더니 일전에 정작 얼굴을 대하니깐 생각던 바와 다름데다. 어쩐지 이전에 정답던 것까지도 다 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마음이 섭섭한지 울었습니다.”

잘 알아들은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말하기 어려운 듯이

“그러면 지금은 그에게 대해서는 별로 사랑이 없습니다그려.”

영채는 저도 제 생각을 모르는 모양으로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글쎄요, 만나니깐 반갑기는 반가운데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려 오던 사람과는 판사람 같아요. 저도 웬일인가 했어요. 또 ㉢그이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여학생은 눈을 감는다. 무엇을 알았단 말이고 하고 영채도 눈을 감는다. 여학생이

“그런데 왜 **죽을 결심**을 하셨어요?”

“아니 죽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바라고 지금껏 살아오던 것인데, 일조에 정절을 더럽히고.”

괴로운 빛이 얼굴에 나타나며

“다시 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겠고…… 이제야 무엇을 바

라고 사나요.”

하고 절망하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인다.

“나는 그것이 죽을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찌하고요?”

“살지요! 왜 죽어요!”

영채는 깜짝 놀라 여학생을 본다. 여학생은 힘 있는 목소리로

“첫째 영채 씨는 속아 살아왔어요. 이형식이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 왔어요. 부친께서 일시 농담 삼아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영채 씨는 칠팔 년 헛된 절을 지킨 것이외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에 허락도 아니 한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야요?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어요? 영채 씨의 마음은 아름답지요, 절은 굳지요, 그러나 그뿐이외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굳은 절을 바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니할까요. 허니깐 지금 영채 씨가 그이를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실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거든 다른 남자 중에 구하실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나 지금토록 마음을 허하여 오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성(古聖)*의 교훈**도 있는데.”

한다.

“아니요, 영채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지내셨지요. 허깨비를 보고 지내셨지요.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합니까. 그것은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이지요. 사람은 제 목숨으로 삽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는 지아버가 어디 있겠어요. 허니깐 영채 씨의 과거사는 꿈입니다. 이제부터 참생활이 열리지요.”

영채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열녀라는 생각과 틀리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과연 지금토록 일찍 형식을 사랑한 적은 없었고 다만 허깨비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형식이라고 짓고 그러고는 그 사람과 진정 형식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는 대신 이형식을 찾다가 ㉤이형식을 보매 그 사람이 아닌 줄을 깨닫고 실망하고 나서는 아아, 이제는 영구히 형식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실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영채는 **잘못 생각하였던 것을 깨닫는** 생각과 또 아주 절망하였던 중에 새로운 광명이 발하는 듯하였다. 그래서 영채는

“**참생활**이 열릴까요?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하고 여학생을 보았다.

- 이광수, 「무정」

*고성: 옛날의 성인.

같은 때 줌 들여다보면 썩 가관이다. 윗목에는 옥이가 누더기를 들쓰고 앉아서 배가 고프다고 킁킁거리고 아랫목에는 화가 치뻔친 아내가 나는 모른단 듯이 벽을 향하여 쪼그리고 누워서는 **꼼짝 안 하고** 높은 아내와 딸 사이에 한 자리를 잡고서 **천장으로만 눈을 멀뚱멀뚱 동글리고 들여다보는** 얼굴이 다 무색할 만치 꼴들이 말 아니다. 아마 먹는 날보다 이렇게 지내는 날이 하루쯤 더할지도 모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배고픔에 시달리던 옥이는 지주인 도사댁 생일 잔치에 가는 개똥 어머니의 뒤를 따라나선다. 잔치집에 모여든 동네 계집들은 그런 옥이를 박대하는데, 도사댁 작은아씨는 웃으면서 옥이에게 큰 대접에 국밥을 맡아 준다. 작은아씨는 옥이가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떡들을 차례로 내어 준다.

만약 이 떡의 순서가 **주악***이 먼저 나오고 백설기 팔떡 이렇게 나왔다면 옥이는 주악만으로 만족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백설기 팔떡은 단연 아니 먹었을 것이다. ㉠너는 보도 못하고 어떻게 그리 남의 일을 잘 아느냐. 그러면 그 장면을 목도한 개똥 어머니에게 좀 설명하여 받기로 하자. 아 참 고년 되우는 먹읍디다. 그 밥 한 그릇을 다 먹구 그래 떡을 또 먹어유. 그게 배 때가지유. 주악 먹을 제 나는 인제 죽나 부다 그랬슈. **물 한 모금 안 처먹고 꼬기꼬기 씹어서 꿀떡 삼키는데 아 눈을 요렇게 뻘쓰고 꿀떡 삼킵디다.** 온 이게 사람이야, 나는 간이 콩알만 했지유. 꼭 죽는 줄 알고 추워서 달달 떨고 섰는 꼴 하고 참 껌 짹해서 내가 다 소름이 쫓옥 끼칩디다. 이걸 가만히 듣다가 그림 왜 말리진 못했느냐고 탄하니까 제가 일부러 먹이기도 할 텐데 그렇게는 못 하나마 배고파 먹는 걸 무슨 혐의로 못 먹게 하겠느냐고 되려 성을 발끈 낸다. 그러나 요건 빨간 거짓말이다. 저도 다른 계집 마찬가지로 마루 끝에 서서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이렇게 여러 번 칭찬하고 깔깔대고 했었음에 틀림없을 게다.

옥이의 이 봉변은 여지껏 동리의 한 이야깃거리가 되어 있다. 할 일이 없으면 계집들은 몰려 앉아서 그때의 일을 짚고 까 붙고 서로 떠들어 댄다. 그리고 옥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걸 그래도 살아난 것이 **퍽이나 이상한** 모양 같다. 탄은 사날이나 먹지를 못하고 몸이 끓어서 펄펄 뛰며 **얇을 만치 옥이는** 그렇게 혼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짜장 가슴을 죄인 것은 그 래두 옥이 어머니 하나뿐이었다. 아파서 드러누웠다 방으로 들어오는 옥이를 보고 고만 벌떡 일어났다. ㉡왜 배가 이 모양이냐 물으니 대답은 없고 옥이는 가만히방바닥에 가 눕더라. **그 배를 건드리지 않도록 반듯이 눕는데 아구 배야 소리를 복고개가 터지라고 내지르며 냉골에서 이리 때굴 저리 때굴 구르며 혼자 법석이다.** 그러나 뺨 위로 먹은 것을 꼬약꼬약 도르고는 펄펄 까무러쳤으리라. 얼굴이 해쓱해지며 사지가 축 늘어져 버린다. 이 서슬에 어머니는 그의 표현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눈앞이 캄캄하였다. 그는 딸을 붙들고 자기도 어이구머니 하고 울음을 놓고 이를 어찌 이를 어찌 몇 번 그래 소리를 치다가 아무도 돌봐 주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허겁지겁 곤두박질을

하여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의 생각에 이 급증을 돌리려면 **점쟁이를 불러 경을 읽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듯싶어서이다. 물론 대낮부터 북을 두드려 가며 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점쟁이의 말을 들어 보면 과식했다고 죄다 이래서는 살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이것은 음식에서 난 병이 아니라 늘 따르던 동자상문*이 어찌다 접해서 일테면 귀신의 놀음이라는 해석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건대 옥이가 도사댁 문전에 나왔을 제혹 귀신이 접했는지도 모른다. 왜냐 그러면 옥이는 문 앞 언덕을 내리다 고만 눈 위로 낙상을 해서 곧 한참을 꼼짝 않고 고대로 누웠었다. 그만치 몸의 자유를 잃었다. 다시 일어나 눈을 몇 번 털고는 걸어 보았다. ㉢다리는 천 근인지 한번 딛으면 다시 떼기가 쉽지 않다. 눈까풀은 뻑뻑거리고 게다 선하품은 자꾸 터지고. 어깨를 치올리어 여전히 식, 식, 거리며 눈 속을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간다. 빼끗만 하엿다가는 배가 터진다. 아니 정말은 배가 터지는 그 염려보다 우선 배가 아파서 빼끗도 못 할 형편. 과연 옥이의 배는 동네 계집들 말마따나 헐 없이 애 밴 사람의, 그것도 만삭된 이의 괴로운 배 그것이었다. 개울 길을 내려오자 우물이 눈에 띄자애는 갑작스레 조갈을 느꼈다. 옆드려 바가지로 한 모금 꿀꺽 삼켜 본다. 이와 목구멍이 다만 잠깐 저렸을 뿐 물은 곧바로 다시 넘어온다. 그뿐 아니라 뒤를 이어서 떡이 꾸역꾸역 쏟아진다. 잘 씹지 않고 열김에 삼킨 떡이라 삭지 못한 그대로 덩어리 덩어리 넘어온다. 우물 전 얼음 위에는 삼시간에 떡이 한 무더기. 옥이는 다시 **눈 위에 기운 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이러던 애가 어떻게 제집엘 왔을까 생각하면 여간 큰 노력이 아니요 참 장한 모험이라 안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옥이네 집을 찾아간 것은 이때 썩 지어서*이다. 해넘이의 바람은 차고 몹시 떨렸으나 옥이에 대한소문이 흥함으로 펍궁금하였다. 허둥거리며 방문을 펄떡 열어 보니 어머니는 딸 머리맡에서 무르팍에 눈을 비벼 가며 여지껏 훌쩍거리고 앉았다. ㉣냉병은 아주 가셨는지 노상 노렇게 고민하던 그 상이 지금은 불과하니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높은 쭈그리고 앉아서 나를 보고도 인사도 없다. 팔짱을 뚝 찌르고는 맞은 벽을 뚫어 보며 무슨 결기나 먹은 듯이 바아루 위엄을 보이고 있다. 오늘은 일찍 나온 것을 보면 나무도 잘 판모양. 얼마 후 높은 옆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여보게 참말 죽지는 않겠나 하고 물으니까 봉구는 눈을 끔벅끔벅하더니 죽기는 왜 죽어 한나절토록 경을 읽었는데 하고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얼치기 대답이다.

- 김유정, 「떡」

- *난 상부른가: 나는 성실은가.
- *비대발괄: 하소연하여 간절히 청함.
- *주악: 웃기떡의 한 가지. 찹쌀가루에 대추를 잘게 다져 섞어 꿀에 반죽하여 깨나 팥 등의 소를 넣고 송편처럼 빚어서 기름에 지진 떡.
- *복고개: 보쪽. 지붕 밑과 천정 사이의 빈 공간.
- *동자상문: 사내아이의 죽은 귀신.
- *지어서: 지나서.

4.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의 서술자는 작중 인물로서 자신이 목격한 바와 그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전달하지만, 종종 시점의 제약을 넘어서 말하기도 한다. 다른 작중 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건에 관해 말하는가 하면, 나아가 전지적인 관점에서 인물의 외양이나 행동뿐 아니라 사건의 세부적 양상과 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 언급하기도 한다. 한편 자신이 서술하고 있는 상황에 관해 언급하거나, 독자를 작품 속에 끌어들여 그 반응을 가정해서 진술을 이어 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다채로운 서술 방식은 사건의 전모를 현장감 있게 보여 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① ㉠: 서술자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함께 서술하고 있다.
- ② ㉡: 서술자가 독자의 질문을 가정하고 주변 인물의 말을 전달받아 사건을 설명하는, 서술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제약을 넘어서고 있다.
- ④ ㉣: 서술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인물의 감정까지 드러내어 현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⑤ ㉣: 서술자가 전지적인 관점에서, 인물 외양이 변화한 양상과 변화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이는 도사댁 문전을 나와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조갈을 느껴 우물물을 마셨다.
- ② 덕희는 '나'가 자신의 집에 문병 온 것을 보고 반기며 옥이의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 ③ 옥이 어머니는 '나'에게 옥이가 아픈 이유가 귀신의 놀음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봉구를 불렀다.
- ④ '나'는 옥이가 고통스러워하며 방에서 뒹굴던 모습을 직접 본 뒤 옥이가 다 나았는지 궁금해했다.
- ⑤ 봉구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 옥이의 병증이 곧 나을 것임을 자신하는 태도로 덕희의 질문에 대답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930년대는 일제의 식민지 농업 정책의 결과 농민들의 빈곤이 극에 달했던 시기이다. 농촌 공동체가 붕괴했으며, 자작농은 소작농으로 몰락했고 소작농은 땅을 잃고 유랑하게 되었다. 또한 전망없는 현실 속에서 저항의 움직임도 있었으나 다수 하층민들은 대책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나가야 했다. 「떡」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옥이네 가족의 빈궁한 삶의 현장과 판단력이 부족한 옥이의 무리한 행동, 이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몰인정한 태도 등을 형상화함으로써 당시 농촌 현실의 아픈 단면을 보여 준다. 특히 굶주림에서 비롯된 욕구를 채우려는 어린아이의 행위가 도리어 위기를 불러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당대 농민들의 비참한 실상을 부각하는 효과를 낳으며, 비극적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되묻게 한다.

- ① '지난날 소작인으로서 땅 팔 수 있었던' 덕희가, '자네들'의 처지가 자신보다 더 나은 듯싶냐고 외치는 대목에서, 일제 농업 정책의 폐해를 덕희가 속한 농촌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함께 겪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딸이 굶주리는데도 불구하고 '뽕짜 안 하고' 누워 있는 옥이 어머니와 '천장으로만 눈을 멀뚱멀뚱 둥글리고 들여다보는' 덕희의 모습에서, 현실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당대 하층민들의 일면이 드러나는 군.
- ③ 다른 음식을 잔뜩 먹고서도 '주악'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삼키는 옥이의 무리한 행동에서, 굶주림이 극에 달한 옥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든 암담한 시대 상황이 떠올라 안타깝게 느껴지는군.
- ④ '옥이의 이 봉변'을 수수방관한 개똥 어머니나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동정하기보다 '이상한' 일로 치부하며 화젯거리로 삼는 동네 계집들의 언행에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몰인정한 세태가 엿보이는군.
- ⑤ '점쟁이를 불러 경을 읽'게 하여 '눈 위에 기운 없이 쓰러'진 옥이가 낫기를 비는 옥이 어머니의 모습에서, 당대 농민들의 무지와 판단력 부족이 옥이가 비극적 사건을 겪은 원인이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겠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얇한 것, 얇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들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첩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할아버니 산소에 상들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받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구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는 독에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엿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우러러보군 현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

의 근거야. 돈 있다구 땅이 뉘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박엔 뵈지 않드라.”

“…….”

“내가 뉘 덕으루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뉘루? 밭에 가 절하구 논에 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허지 않군 사람헌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섭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가 분명한 게 무어나?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혼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작인들헌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앓어 소출은 팔어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 가꾸는 덴 단돈 일 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니? 독이 떠나가니 아니? 거름 한 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허게 돼 작인이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이 신의들 주사침 놓듯,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흘뎠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루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열어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중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허려는 게 과히 영똥헌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런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허게 진실허게 해라.”

“…….”

“내가 가업을 이어 나가지 않는다군 탄허지 않겠다. 넌 너루서 발전헐 길을 열었구, 그게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허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삼사 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논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우 애석헌 심사가 없달 순 없구…….”

(중략)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허다. 그러나 이 늙은이헌테두 그만 신념쯤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 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주루루 흘리었다.

“너이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었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 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 버리었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싶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 이태준, 「돌다리」

*금비: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거름. *전장: 논밭.

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소재이다.
- ② 아버지에게 고향에 대한 슬픔을 상기하는 소재이다.
- ③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게 만드는 소재이다.
- ④ 아버지로 하여금 가족의 역사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 ⑤ 아버지가 신봉하는 세속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다.

8.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아버지가 땅에 대해 갖고 있는 ‘일종 종교적 신념’을 창섭이 확인한 것을 전제하는 것이군.
- ② ㉡는 아버지를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면서도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것을 느끼는 창섭의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③ ㉡는 자신의 계획을 ‘이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 아버지를 이해하면서도 같은 생각은 가질 수 없는 창섭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군.
- ④ ㉢는 아들의 ‘짧은 욕망’을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반복한 것에 대한 아버지의 불편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군.
- ⑤ ㉢는 선대로부터 ‘공들여 이룩해 온 전장’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손에 내맡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군.

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돌다리」에서 서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다. 아버지와 아들 창섭의 갈등은 전통적·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근대적 합리성 중 무엇을 추구하는가와 같은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한 것이다. 이는 병원 확장과 관련된 아들의 제안, 제안에 대한 아버지의 거절과 그에 대한 이유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작품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합치되기 힘든 세대 간의 관계는 인물 간의 대화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전개되는 양상, 인물들의 생각을 제시하는 화법이나 어조의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작가가 보존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암시함과 동시에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성찰과 같은 작품의 주제 의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이익 산출의 대상으로 병원을 생각하는 창섭의 가치관은 그가 땅을 대하는 관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군.
- ②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묵묵히 듣기만 하는 등의 상호 소통이 아닌 대화 상황에서, 두 세대가 일정한 거리를 지닌 합치되기 어려운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돈만 있으면 언제든 좋은 땅을 살 수 있다는 아들의 의견에 다소 걱정적인 어조로 땅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데서, 세대 간 갈등의 원인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아버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아들의 의견은 간접 화법의 방식으로 제시된 데 반해 아버지의 견해는 직접 화법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생생하게 제시된 것에서, 작가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빌려 전통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군.
- ⑤ 자신의 견해를 하늘의 덕, 보답을 하는 땅 등을 근거로 역설하는 아버지와,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로 부모님의 도시로의 이주, 가격이 싼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 등의 근거들을 합리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나열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인물 간의 대립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십 년은 더 늙은 것 같네. 그간 고생 몹시 했지? 학교에서 문 열구 나오는 자넨, 자네루 알아 못 보았었네. 어찌먼 그렇게 훈장 티가 꼭 뻗나?”

“일 년 못 돼 훈장 티가 배어 뵈다면야 슬픈 일이네마는…… 알아 못 보긴 자넨 게 아니라 내였네. 상큼한 콧날과 움푹 팬 눈이 자네 얼굴의 특징이었었는데, 콧날은 없어지고 눈마저 변했다면 통 알아 못 볼 뻔했네.”

“…….”

“그렇게 변한 자네의 삼 년이 알고프네. 6·25 나던 때, 신문 사서 갈라진 게 마지막이 아닌가?”

“그랬던가? 내 애긴 차차 하고 자네 지낸 일 들어 보세.”

그러는데 요리가 들리어 들어왔다.

“자, 들게.”

흰 알잔에 따른 빼주가 쿡 코를 찌른다. 둘은 함께 들어 조금 씹 마시었다. 조운의 젓가락은 해삼 요리에 먼저 갔다. 호르몬 제라고 중국 요리를 먹을 때마다 죄 없는 화젯거리가 되는 음식이다.

석은 문득 그것을 생각하고 빙그레 웃음을 띠는데, 조운은 큰 놈 한 개를 집어 입에 넣고 씹으면서,

“삼 년 동안 나는 타락했네.”

하였다.

“타락이라니? 난 자네의 세계가 넓어지고 커졌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판인데…….”

조운은 얼굴에 또 복잡한 표정이 서리더니, 잔에 술을 부어서 먼저 들이마시고 빈 잔을 석에게 건넸다.

잔은 왔다 갔다 하였다.

석은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거나해 간다. 한 달 만에 접구하는 것이라 좋은 안주에 술맛을 한결 돋우었다.

말하기 꼭 좋았다.

“나는 이를테면 넓은 데서 좁은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 **움짱 달짝 못 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터이지만, 자네야 **넓은 세계에 활활 날아다니는** 셈 아닌가? 작품 세계가 커지고 힘차리라고, 오늘 자네를 대할 때부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네.”

“작품?”

“그래!”

잠깐 머리를 푹 숙이었다가 조운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벗어 못에 걸어 놓았던 외투 안주머니에서 종이에 쓴 것을 끄집어냈다.

“이걸 보게.”

내미는 종이 꾸러미를 펴 보고 석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뭐가?”

거기에는 새것인 ㉠검정 넥타이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이 나타났다.

봉투에는 ‘조운 선생님’이라고 틀림없는 여자의 글씨가 단정하게 써어 있었다.

어안이 뻥뻥해 앉았는 석에게, 조운은 편지를 집어 알맹이를 내어 주었다.

“읽어 보게.”

“읽어두 괜찮은가?”

“읽게.”

펴 보니 간단한 문면이었다.

선생님 호의는 뼈에 사무치오나 **제가 취할 길은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그사이 저는 선생님 몰래 간호 장교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시험은 월요일 대구에서 치르나, 준비 때문에 지금 떠납니다…….

그때 그 넥타이는 집과 함께 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대 신입니다. 선생님은 역시 검정 넥타이를 매셔야 격에 어울립니다. 안녕히.

미이 올림

“미이?”

석은,

“그 미이인가?”

하고 가볍게 놀라면서 물었다.

“그렇네.”

미이는 조운을 따라다니던, 석도 잘 아는 문학소녀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미이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명랑한 문학소녀였으나, 전쟁 중 집안이 몰락하자 부산으로 피란을 와서 취직자리를 구하던 중 우연히 조운을 만나게 된다. 조운은 미이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녀를 도울 방법을 궁리해 본다.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 줄 것에 생각이 미치었네.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되고, 미이의 명랑성도 센스도 살릴 수 있고, 수입 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네.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리던 미이였으나, 다음 날 오 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었네.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일 터인데 망설이는 것이 수상적었으나, 그러마 하고 나는 동아극장 옆에 있는 마침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 맡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었네. 그 닷새 되는 날이 오늘이고, 정한 시각에 연락 장소인 다방엘 갔더니, 레지가 내민 것이 종이 꾸러미였었네. 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다른 길과 달라 간호 장교이

[A] 고 보니,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아님이** 대뜸 짐작이 갔고,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검정 넥타이였었네. 그러면 미이가 첫날 다방에서 ‘사명 운운’했던 것은 그 길을 말함이었던가?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네.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삼 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었네. 미이가 말하는 그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다하는 일을 나는 사명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일세. 가장 잘 생각하는 체하던 나는 가장 바보같이 생각했고,

부박하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여기었던 미이는 사변에서 키워졌고 굳세어졌고,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일세.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지는 듯 했네. 구르면서 걸어잡으려고 한 것이 친구의 구원이었네.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일세…….

조운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석은, 여기 올 때까지 그렇게 호기심을 끌었고 기대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는 이젠 아무런 흥미도 가지지 않았다. 더욱이 그의 고민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석의 뇌와 마음은 강렬한 미이의 인상으로 꽉 차 있었다.

그리고 미이가 조운의 마음에 던져 준 충격 이상의 충격을 석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안주가 좋아서만이 아니었다. 그 강렬한 배갈도 석을 취하게 하지 못했다.

역시 마음이 미이로 말미암아 팽팽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운의 차로 집에 돌아와서도 석은 큰소리를 탕탕 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얌전하게 자리에 들어가 가족들을 들볶지 않았다.

그의 **엄숙한 태도**에 가족들은 또 술을 먹었다고 잔소리를 할 수 없었다.

자리에 드러누워 그는 생각하였다.

‘조운의 말대로 조운은 사변의 압력으로 그의 사명을 포기했고, 사변을 통하여 미이는 용감하게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였다. **그러면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석은 중얼거렸다.

“**사명을 포기치도 그것에 충실치도 못하고 말라 가는 나는? 나도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고 할까?**”

- 안수길, 「제3인간형」

10. 다음은 윗글의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할 때 세 번째에 올 것은?

- ㉠ 석과 조운이 전쟁 중에 신문사에서 헤어지다.
- ㉡ 석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에 취직하다.
- ㉢ 미이가 간호 장교 시험을 준비하려고 대구로 떠나다.
- ㉣ 조운이 제안한 일에 대해 미이가 시간을 두고 숙고하다.
- ㉤ 조운은 오래간만에 만난 석을 처음에 잘 알아보지 못하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3인간형」은 문학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던 인물들이 6·25 전쟁을 거치며 겪는 고뇌와 변화를 다룬 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전쟁으로 인한 시대적 요구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인물 유형, 사명을 포기하고 마는 인물 유형, 사명을 잊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도 못하는 인물 유형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 삶의 방향과 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하기도 한다.

- ① 석은 ‘옴짝달싹 못 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자기 삶의 모습 역시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는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미이가 조운의 마음에 던져 준 충격’은 조운이 자기 삶을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미이가 조운의 마음에 던져 준 충격’은 조운이 자기 삶을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제가 취할 길은 이미 작정되었’다고 생각하는 미이는 전쟁을 계기로 시대적 요구와 관련된 사명을 발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사명을 포기치도 그것에 충실치도 못하고 말라 가는’ 석과 비교해 볼 때 조운이 ‘넓은 세계에 활활 날아다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문학에 삶의 가치를 두는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운의 각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조운과 미이가 공유하는 추억과 관련이 있다.
- ③ 미이가 볼 때 조운이 지닌 면모에 부합하는 사물이다.
- ④ 석이 조운에게 기대하고 있던 삶의 모습과 연관성이 있다.
- ⑤ 미이에 대한 조운의 불안한 예감이 적중했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1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하는 말의 형식을 띠고 있다.
- ② 두 인물의 심리를 번갈아 묘사하여 사건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③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을 찾아온 이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
- ④ 한 인물이 경험한 일과 그것으로부터 느낀 감정이 서술되어 있다.
- ⑤ 두 인물이 알고 지내던 특정 인물의 근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는 동욱 남매를 떠올린다. 6·25 전쟁 피란지 부산의 거리에서 원구는 친구 동욱을 만나는데, 그는 여동생 동욱과 함께 살면서 동욱이 그린 초상화를 미군 부대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원구는 외진 곳의 낡은 목조 건물에 사는 동욱 남매를 찾아가지만, 다리를 심하게 저는 동욱이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는 것을 느낀다. 그 뒤 원구는 종종 동욱의 집에 드나들며 동욱과도 점차 친해진다.

그는 역시 소매와 깃이 다 처진 저고리와 검은 줄이 간 회색 즈봉을 입고 있었다. 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라 비에 젖은 것을 그냥 짜서 말리곤 해서 여기저기 꾸깃살이 젖어 있었다. 그보다도 괴이한 채플린식의 그 검정 단화의 주먹 같은 코숭이가 말이 아니었다. 장화 대용으로 진창을 막 밟고 다녀서 온통 흙투성이였다. 그러한 동욱의 꼴에 원구는 이상하게 정이 갔다. 리어카를 주인집에 가져다 맡기고 와서 저녁을 같이하자고 원구는 동욱의 손을 끌었다. 동욱은 밥보다도 술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했다.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원구는 동욱을 안내했다. 술이 몇 잔 들어가 얼근해지자 동욱은 **초상화 '주문 도리(반음)'를 폐업했노라**고 했다. 요즘은 양키들도 아주 약아져서 까딱하면 돈을 잘리거나 농락당하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패스 없는 사람의 출입을 각 부대가 엄중히 단속하기 때문에 전처럼 드나들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며칠 전에는 **돈 받으러 몰래 들어갔다**가 **순찰 장교에게 걸려서** 하룻밤 멍키 하우스 신세를 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국민병 수첩까지 분실했으므로 마음 놓고 거리에 나와 다닐 수도 없다는 것이다. 분실계를 내고 재교부 신청을 하라니까, 그 때문에 동회로 파출소로 사오 차나 쫓아다녀 봤지만 까다롭게만 굴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까짓거 나중에는 삼수갑산엘 갈망정 내버려 둘 테라고 했다. 그래 차라리 군에라도 들어가 버릴까 싶어, 마침 통역 장교를 모집하기에 그 ㉠원서를 타러 나왔던 길이노라고 했다. 어디 원서를 좀 구경하자니까 동욱은 **닝글닝글 웃으며, 수속이 하도 복잡하고 번거로워 아예 단념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동욱은 한동안 말이 없이 술잔을 빨고 앉았다가, 가끔 찾아와서 동욱을 좀 위로해 주라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동욱은 맑은 날일지라도 일절 바깥출입을 않고 **두더지처럼 방에만 처박혀**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반감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동욱도 원구만은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고 자연스레 대해 준다고 해서 자주 찾아와 주기를 여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초상화가 팔리지 않게 된 다음부터의 동욱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한층 더 자신의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 찢찢맨다는 것이었다. 동욱은 그러한 동욱이가 측은해 못 견디겠노라 했다. 언젠가처럼, 내가 자네랑 동욱이와 결혼할 테야, 암 하구말구, 하고 동욱은 고개를 주억거리는 것이었다. 술집을 나와서 동욱은 이번에도 원구의 손을 꼭 쥐고 자기는 기어코 목사가 되겠노라 했다. 동욱

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그것만이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 뒤에 한번은 판 불일로 동래까지 갔던 길에 동욱이네 집에 잠깐 들른 일이 있었다. 역시 그날도 장맛비는 구질구질 계속되고 있었다. 우산을 접으며 마루에 올라서도 동욱만이 머리를 내밀고 맞아 줄 뿐, 동욱의 기척이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동욱은 담요로 머리까지 푹 뒤집어쓰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이틀째나 저러고 자빠져 있다고 하며 동욱은 그 까닭을 설명했다. 동욱은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이만 환이나** 빛을 주고 있었는데, 노파는 **이 집까지도 팔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해 버렸**다는 것이다. 어제 아침에 집을 산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또한 어지간히 감때사나운 자여서, 당장 방을 비워내라고 위협하듯 한다는 것이다. 말을 마치고 난 동욱은, 요 맹꽂이 같은 년아, 글썽 이게 집이라구 민구 돈을 쥐, 하고 발길로 동욱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년아, 이만 환이면 구화로 열만 줄 아니, 이백만 환이다, 이백만 환이야, 내 돈을 내가 떼었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나구? 그래 내가 없으면 네년이 굶어 죽지 않구 살 테냐? 너 같은 병신이 단 한 달을 독립으루 살아? 동욱은 다시 생각을 해도 악이 받치는 모양이었다. 원구를 위해 동욱은 초밥을 만든다고 분주히 부엌으로 들락날락했으나, 원구는 초밥을 얻어먹자고 그러고 앉아 견딜 수는 없었다. 그보다도 동욱이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러고 누워 있다고 하니, 혹시 동욱이가 잠든 틈에라도 몰래 일어나 수면제 같은 것을 먹고 죽어 있거나 앓는가 싶어 불안한 생각이 솟았다. 원구는 조금이라도 더 앉아 견디기가 답답해서 자리를 일어서며, 아무래도 방을 비워 주어야 하겠거든 자기도 어디 구해 보겠노라고 하니, 동욱이가 인가(人家) 많은 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다 외판집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동욱의 대답이었다.

그 뒤로는 원구도 생활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 가까이 장마로 놓고 보니 자연 시원치 않은 장사 밀천을 그럭저럭 축내게 된 것이다. 원구가 얻어 있는 방도 지리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졌다. 벗어 놓은 옷가지며 이부자리에까지도 ㉡ **곰팡이가** 끼었다. 그의 마음속에까지 곰팡이가 스는 것 같았다. 이런 날 이런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욱의 일이 자연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점심때가 거진 되어서 원구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동욱이와 마주 앉아 곰팡이 쓴 술로 씻어 내리며, 동욱이도 위로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원구는 ㉢ **술과 통조림**을 사 들고 찾아갔다. **낡은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이 빗속에 서 있었다**. 유리 없는 창문에는 거적도 그대로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동욱이, 하고 원구가 불렀을 때, 곰처럼 마루로 기어 나오는 사나이는 동욱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살던 젊은 남녀는 어디 갔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우락부락하게는 생겼으되 맏힌 데가 없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사십 전후의 그 사나이는, 아하 당신이 정(丁) 뭐라는 사람이냐고 하고, 대답 대신 혼자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것이었다. 원구가 재차 물

는 말에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 주인이노라 하고 나서, 동옥은 외출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그 뒤 동옥 역시 어디로 가 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동옥이가 안 돌아오는 지는 열흘이나 되었고, 동옥은 바로 이삼일 전에 나갔다는 것이다. 원구는 더 무슨 말이 없어서 있었다. 한 손에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사나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원구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몇 걸음 걸어 나가다가 되돌아와 보자기에 싼 물건을 끌러 주인 사나이에게 주었다. 이거 원, 이거 원, 하며 주인 사나이는 대뜸 입이 헤벌어졌다. 그러고는 자기 여편네와 아이들이 장사 나갔기 때문에 점심 한 그릇 대접할 수는 없으나, 좀 올라와 담배라도 피우고 가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무슨 재미로 쉬어 가겠느냐고 하며 원구가 돌아서려니까, 주인은, 잠깐만 하고 불러 세우고 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노라고 하며 사실은 동옥이가 정 누구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 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 없앴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무 말을 않고 멍청히 서 있는 원구를, 주인 사나이는 무안한 눈길로 바라보며 동옥은 아마 십중팔구 군대에 끌려 나갔을 거라고 하고, 동옥은 아이들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가끔 밤중에 울기에 뭐라고 좀 나무랐더니 그 다음 날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 버리었다는 것이다. 죽지나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 죽든……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돌아서는 원구의 등에다 대고, ㉠중요한 옷가지랑은 꾸러미 가지고 간 모양이니 자살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고만큼 반반하고서야 어디 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이는 지껄이는 것이었다. 얼굴이 고만큼 반반하고서야 어디 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는 말에 이상하게 원구는 정신이 팔쩍 들어,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 듯한 격분을 마음속 한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천 근의 무게로 내리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이키었다.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오한을 느끼며 원구는 호박 넝쿨 우거진 발두둑 길을 밟고 난 사람 모양 허전 거리는 다리로 걸어 나가는 것이었다.

- 손창섭, 「비 오는 날」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 특정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간접 인용의 방식을 통해 인물의 발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 ④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복수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
- ⑤ 대화와 외화의 서술자를 달리 설정하는 액자식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화하고 있다.

15.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현실의 난관을 타개하려는 동옥의 노력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옥이 느끼는 무력감을 더해 준다.
- ② ㉡: 장마가 지루하게 계속되는 이 작품의 우울한 분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원구가 동옥 남매를 만나러 집을 나서는데 하나의 계기로 작용한다.
- ③ ㉢: 원구가 동옥 남매를 위로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지만, 본래의 용도와 달리 오히려 원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④ ㉣: 유일하게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해 준 원구에 대한 동옥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리라고 추정되지만, 결국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게 된다.
- ⑤ ㉤: 동옥이 집을 나갔다는 증거인 동시에, 사나이가 동옥에 관한 원구의 짐작이 틀렸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손창섭은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1950년대의 혼란과 절망을 소설화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인물들이 갖게 되는 근원적 절망은 극도의 물질적 궁핍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파탄에서 오는 배신감에도 기인하는데, 이러한 인물은 인간에 대한 모멸을 느끼고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또 비록 타인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교감하려 노력하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거나 자학하곤 한다. 이는 전망이 부재한 전후의 사회상에서 비롯된 작가의 허무주의적 주제 의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초상화 ‘주문 도리(받음)’를 폐업’한 것과, 군부대에 ‘돈 받으러 몰래 들어갔다’가 순찰 장교에게 걸려서’ 고초를 겪은 동옥의 상황은 당시 빈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극도의 물질적 궁핍과 관련된다고 하겠군.
- ① ‘초상화 ‘주문 도리(받음)’를 폐업’한 것과, 군부대에 ‘돈 받으러 몰래 들어갔다’가 순찰 장교에게 걸려서’ 고초를 겪은 동옥의 상황은 당시 빈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극도의 물질적 궁핍과 관련된다고 하겠군.
- ③ 동옥은 자신이 ‘동옥이도 모르게 이만 환이나’ 빌려준 주인 노파가 ‘집까지도 팔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해 버린’ 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하고 더욱 깊이 절망하게 되었겠군.
- ④ ‘금방 쓰러질 듯이 빗속에서 있’는 ‘낡은 목조 건물’은 당시 빈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처하게된 훼손된 삶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⑤ 원구가 사나이의 말을 듣고 ‘아무 말을 얹고 멍청히 서 있’다가 발길을 돌리면서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을 한 것은 위선적 행동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도덕적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웬 사람들이슈?” / “돈 주께 술 파시오.”
 “하하, 여기선 술을 안 파는데요. 이다음 집에 가 보슈.” / “여기선 뭘 파우?”
 “여긴 여인숙이오.” / “정말 그렇군. 간판이 없는데, 낮에 본 간판 말야.”
 “여인숙 간판은 있을 거 아냐?” / “아, 간판 없이 손님을 받죠.”
 “그럼 대문이라도 따 놔야지.” / “아홉 시 막버스가 지나가면 손님이 없습죠.”
 “우린 손님 아니우?” / “우린 이 집 손님이 아니지. 이다음 집 손님 아냐?”
 “난 이 집 손님이 됐으면 좋겠어. 한숨 자고 싶은데.”
 김 씨는 벌써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어이가 없는 모양이다.
 “학생. 하, 학생?”
 그러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마당이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하게 빛나고 있다. 그리고 그 저편에 시커먼 마루가 있고 불빛이 비친 방문이 있다. 그 방문이 열리고 남폿불이 쭉 나온다. 그는 그리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마루에 걸터앉는다. 소년이 남포를 기둥에 걸고 방을 치운다. / “들어가두 괜찮으니?”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루 위로 오른다. 걷기보다는 몸을 위로 올리기가 더 힘들다. 바깥이 조용해진다. 아마 주사와 선생은 술집으로 간 모양이다. 소년이 책 나부랭이를 챙겨 가지고 나온다. 부러진 연필토막이 희미한 남포 불빛을 받아 눈에 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허리를 굽히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어둡고 냄새가 고약하다. 소년이 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벽 중간간에 있는 못에다가 건다. 호야*가 양철에 부딪치면서 소리를 낸다. 소년이 나간다. 그는 불 건너편 벽에 기대앉아서 담배를 피워 문다. 연기를 내뿜는다. 불꽃이 한참 있다가 흔들린다.
 소년이 침구를 안고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편다. 일어서려 할 때 보니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다. 그는 그를 가까이 불러서 그 훈장을 들여다본다. 둥근 바탕에 가로로 5년 2반이라 써어 있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세로로 반장이라 써어 있다. 조잡한 비닐 제품이다.
 “너 공부 잘하는구나.” / “예. 접때두 일등 했어요.”
 아, 이건 뽀뽀스럽구나,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주제에. “여기가 너희 집이냐?”
 “아네요. 여긴 이모부 댁이에요. 저의 집은요, 월출리

예요. 여기서 삼십 리나 들어가요.”

가난한 대학생. 덜커덩거리는 밤의 전차. 피곤한 승객들. 목련 경적 소리. 종점에 닿으면 전차는 앞뒤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뺏어 낸다.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초라한 길가 상점들의 희미한 불빛들이 그들을 건져 낸다. 그들은 고개들을 가슴에 묻고 조금씩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간다. 그리고 은밀히 하나씩 둘씩 골목들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가난한 대학생 앞에 대문이 나타난다. 그는 그 앞에 선다.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망설인다. 아, 이럴 때 팡팡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는 주먹을 편다. 편 손바닥으로 대문을 어루만지듯 흔든다. 또 흔든다. 고무신 짝 끄는 소리가 들려온다. 식모의 고무신 짝은 겸손하게 소리를 낸다. 그는 안심한다. 안심이 배 속으로 쭉 가라앉는다.

[A]

“학관 여기서 다니냐?”

그는 눈을 게슴츠레하게 뜬다. 심지를 줄인 남폿불이 눈앞에서 가물거리고 있을 뿐 소년은 보이지 않는다. 방바닥이 뜨뜻하다. 술이 점점 더 취해 오른다. 그는 옷을 입은 채 허리를 굽히고 손발을 이부자리 밑으로 쭉서 놓는다. 베타이를 풀어야지. 그러면서 그는 눈을 감는다.

“일등을 했다구? 좋은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영국, 불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랏돈이나 남의 돈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돈 없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흔한 것이 장학금이다.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는 입을 다물고 흥얼거렸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머릿속에는 몽롱한 가운데에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너는 아마도 너희 학교의 천재일 테지. 중학교에 가선 수재가 되고, 고등학교에 가선 우등생이 된다. 대학에 가선 보통이다가 차츰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온다. 결국 이 열등생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고생해 온 셈이다. 차라리 천재이었을 때 삼십 리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뭇 나무꾼이 되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천재라고 하는 화려한 단어가 결국 촌놈들의 무식한 소견에서 나온 허사였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 된다. 그들은 천재가 가난과 끈질긴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열등생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①누구나 다 템스강에 불을 처지를 수야 없는일이다. 허영계 색이 바랜 짧은 바지를 입고 읍내까지 몇십 리를 걸어서 통학하는 중학생. 많은 동정과 약간의 찬탄. 이모 집이나 고모 집이 아니면 삼촌이나 사촌네 집을 전전하면서 고픈 배를 졸라매고 낡고 무거운 구식의 커다란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다 끼고 다가오는 학기의 등록금을 골똘히 생각하며 밤늦게 도서관으로부터 돌아오는 핏기 없는 대학생. 그러다 보면 천재는 간 곳이 없고, 비굴하고 피곤하고 오만한 낙오자가 남는다. 그는 출세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떠한 것도 주임 교수의 인정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외국에 가는 기회는 단 하나도 그의 시도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다. 따라서 그가 성공할 확률은 대단히 높다.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적중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적중하느냐 않느냐가 아니라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데에 있다.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그는 그가 처음 출발할 때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곳으로부터 사뭇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음을 깨닫는다. 아 — 되 찾을 수 없는 것의 상실임이여!

- 서정인, 「강」

*호야: 남포동.

17.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씨는 일행과 헤어져 여인숙에 묵게 된다.
- ② 김 씨는 자신의 집을 떠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 ③ 김 씨는 주사, 선생과 함께 소년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고 있었다.
- ④ 소년은 자신의 집인 여인숙에서 일을 도우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 ⑤ 김 씨는 소년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김 씨'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윗글에 나타난 '김 씨'의 삶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① 소년과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㉗~㉙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있다.
- ② ㉗~㉙의 삶이 결과적으로 낙오자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점에서 후회하고 있다.
- ③ ㉗에서 ㉙로 이어지는 시간을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 ④ ㉙를 겪는 과정에서 출세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게 되었다.
- ⑤ 어린 시절에는 자신이 살아갈 ㉙의 삶의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19. <보기>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학생들의 답변 중 선생님의 질문에 부합하는 것만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이 작품은 이야기를 전개할 때 서사 진행의 '지연'을 통해 현대 사회의 무의미한 인간관계와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연이란 사건 진행의 시간은 늦춰지고 서술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서사의 흐름이 멈춰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예측하는 서사의 흐름이 속도감 있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서술상의 장치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A]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장치를 한 번 찾아볼까요?

[학생들의 답변]

- ㄱ. 대화 사이에 한 인물의 회상을 길게 서술함으로써 사건 진행의 흐름을 늦추고 있어요.
- ㄴ. 소외된 등장인물들의 지난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함으로써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 ㄷ. 대화 상대 없이 한 인물이 혼자 말을 길게 하는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서사의 흐름의 속도감을 늦추는 효과를 주고 있어요.
- ㄹ. 현재형 어미와 과거형 어미를 반복하여 시간 진행에 혼란을 줌으로써 서사 진행에 대한 독자의 예측을 방해하고 있어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0.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료 조사의 목적]

작중 상황에는 제목과 관련된 ‘강’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영국의 ‘템스강’이 언급되고 있는데 작가가 소설가이자 영문학자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조사하였다.

- 자료 1: [영어 사전] 템스강에 불을 지르다(set the Thames on fire)
 -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다. 대단한 일을 하다.
- 자료 2: [문화 상징 사전] 강(江)
 - 창조의 신비, 죽음과 재생, 정화와 구원, 비옥과 성장 등의 원형성을 지녔으며, 시간의 흐름 또는 삶의 과정에 비유되거나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변화와 지속의 표상으로 쓰이기도 한다.
- 자료 3: 「황무지」
 - 영국 작가 엘리엇의 작품으로 작가는 기름으로 오염된 ‘템스강’을 생명력과 역동성을 상실한 황무지로 묘사하여, 강을 현대 산업 사회가 만들어 낸 오욕의 대상으로 묘사하였다.

- ① 자료 1을 참고할 때, ㉠에서 ‘템스강’에 불을 지른다는 것은 삶에 대한 개인적 열망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자료 2를 참고할 때, ㉠에는 ‘강’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현대인의 삶의 과정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자료 3을 참고할 때, ㉠에는 소년을 현대 사회가 만들어 낸 오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의 해명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자료 1과 자료 2를 참고할 때, ㉠에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삶에서 아무나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자료 1과 ‘그’의 심리를 고려하면, ㉠에는 소년의 열망이 미래에는 현실화될 수 없다는 ‘그’의 비애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장뿐 아니라 뱃사람들도 쳐서, 이 배의 그들 석방자들에 대한 눈치에는, 어느 나뭇의 은근히 알아준다는 대목이 있다. 그 대목인즉 그들 석방자들이 제 나라 어느 한쪽도 마다하고, 낯선 땅을 살 곳으로 골랐다는 데서 제 나라에서 쫓긴 수난자 같은 모습을 저희들대로 그려 낸 탓인 모양이다. 이런저런 일로 그런 눈치를 채게 될 때마다 턱없는 몫을, 눈을 지레 감으며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부끄러움을 맛본다.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혀를 차고 나무라고 싶게 못마땅하다. 그 마음을 다 파헤치면 뜻밖에 섬뜩한 무엇이 튀어나올 것 같아 두루뭉술한 손길로 얼버무리 온다.

“어때요, 느낌이? 기대, 두려움?”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명준은 고개를 젓는다. 선장은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혹 뿜어내면서 가볍게 웃는다.

“허긴, 나로선 알 수 없는 일이야, 자기 나라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생판 다른 나라로 가 살겠다는 그일이 말이야. 부모나 가까운 핏줄이라든지, 아무도 없소?”

“있어요.” / “누구? 어머니?”

“아니.” / “아버지?”

명준은 끄덕이면서 왜 어머니부터 물어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다.

“애인은?”

명준은 얼굴이 그렇게 알리도록 금시 해쓱해진다. 선장은 당황한 듯이 오른손 인지를 세우고 고개를 까딱해 보이면서,

“미안, 미안.”

아픈 데를 건드린 실수를 비는 그런 품에 그들로서는 버릇인지 모르나 펍 분별 있는 사람의 능란한 몸짓이 얼핏 스친다. 선장을 잠시나마 거북하게 해서 안됐다. 양쪽으로 트인 창으로 바람이 달려 들어와서, 바늘로 꿰아 놓은 해도의 가장자리를 바르르 떨게 한다. 갈매기들은 바로 옆을 날면서 창으로 테두리진 넓이를 내려가고 치솟으며, 맞모금을 긋고 배꼬리 쪽으로 휩 사라지곤 한다.

햇빛이 한결 환해지면서 멍한 느낌이 팔다리를 타고 흘러간다. 먼 옛날 그의 초라한 삶에서 그래도 무겁다고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도 그렇더니…… 애인은? 그 말이 아직 이토록 깊고 힘센 울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애인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나설 리가 있습니까?”

명준은 미안했던 것을 배우기나 하듯, 짐짓 누그러지면서 선장을 건너다본다.

선장은 잠깐 실눈이 되었다가, 문득, 잘라 말한다.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몹시 가라앉은 말투에 섬뜩해지면서, 빈 찻잔을 들어 만지작거린다. 저쪽은 다짐하듯,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 “글쎄요.”

아까와는 판판으로, 그 일에 내놓고 티를 보이는 품이 곧아서 좋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도 항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으니까.”

(중략)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중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 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찢끔찢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책책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람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썬할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피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 김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 최인훈, 「광장」

21. ‘명준’과 ‘선장’의 대화가 갖는 서사적 기능을 ‘명준’의 입장에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자신의 처지를 수난자 같은 모습으로 연상하게 한다.
- ② 석방자들과 뱃사람들이 유대감을 쌓는 방법을 알게 한다.
- ③ 지난날의 쓰라린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④ 선장에게 자신이 겪어 온 지난날의 삶을 토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⑤ 낯선 땅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22. <보기>는 작중 상황에서 윗글 이전에 제시된 부분이다. 윗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명준’에게 ㉠가 어떤 의미인지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국주의자들의 균을 문혀 가지고 온 자로서, 일이 있을 적마다 끌려 나와 참회해야 할 것이었다. 마치 동네 안에 살면서도 사람은 아닌 문둥이처럼. 그런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해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까닭이었다. 그렇다면? 남녘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눈에는, 남한이란, 키르케고르 선생 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다.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숯제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다만 좋은 데가 있다면, 그곳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 ① 진정한 자유를 고민하던 이가 선택한 기대의 공간이다.
- ② 조국 재건의 일꾼이 되기를 거부하고 떠나는 낯선 공간이다.
- ③ 제국주의와 같은 이념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다.
- ④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 건설되어 있는 공간이다.
- ⑤ 동일한 공간에 살면서 문둥이 대접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공간이다.

23. '명준'이 처한 선택 상황을 고려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웃음'은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득자의 회유를 거절해 낸 것에 대한 명준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
- ② ㉡: '바다'는 마실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득자의 허황된 말에 대한 명준의 심리를 담아내고 있다.
- ③ ㉢: '골짜기'는 움푹 파인 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덥지 않은 설득자의 말을 들으며 명준이 느낀 이상과 현실 사이에 놓여 있는 위험을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
- ④ ㉣: '마술사'는 과학이 아닌 마술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가 솔깃할 말로 명준을 피려는 설득자를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⑤ ㉤: '균'은 병을 일으키고 옮기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을 알고 돌아온 명준을 회유하려는 설득자의 속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4. <보기 1>은 윗글이 개작되기 전의 [A]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기 2>를 바탕으로 [A]와 <보기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

개인적인 상처를 건드린 실수를 사과하는 **그런 태도에 그들로서는 습관인지 모르나** 껍 교양이 있는 사람의 세련된 몸짓이 얼핏 스치는 것을 느꼈다. **선장이 잠시나마 어색한 기분을 가지게 한 것을 명준은 미안스럽게 여겼다.** 양쪽으로 트인 창으로 바람이 **달려 들어오며** 핀으로 꽃은 해도의 **가상자리를** 바르르 **떨게 했다.** 갈매기들은 바로 배 옆을 날으면서 창으로 구획된 공간을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아래서 위로 **치솟으며** 대각선을 긋고 선미를 향하여 **휩 사라지곤 했다.**

<보 기 2>

최근 「광장」의 열 번째 개작이 있었다. 이전 판에 있던 한자어, 외래어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 작가는 “관례적 표현과 어떤 심상이 오래 결합됨에 따라 심상의 형성 과정 - 의식과 현실 사이의 싱싱한 갈등을 표현하는 데 미흡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 글의 완결성을 높였다. 그리고 부호의 사용, 문장의 길이 및 표현의 변화를 통해 문장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한편 문장에 리듬감과 간명함 그리고 참신성을 부여하는 등 이번 개작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첨예하게 자신의 글을 고쳐 나간 흔적이 역력했다.

- ① 관례적 표현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고친 것은 '그런 품에 그들로서는 버릇인지 모르나'와 같은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군.
- ② 문장의 길이 변화를 통해 문장에 간명함을 주고 있는 것은 '선장을 잠시나마 거북하게 해서 안됐다.'와 같은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군.
- ③ 부호를 통해 문장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달려 들어와서,' '치솟으며,'와 같은 어휘 뒤에 쓰인 쉼표의 사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④ 완결성을 위해 한 글자 한 글자 바로잡고 있는 것은 '가장 자리'와 같은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⑤ 작가의 의식과 현실 사이의 갈등 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작한 것은 '떨게 한다', '사라지곤 한다'와 같은 시제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몇 해 전, 해방되던 날만도 아버지는 읍내 사람들과 함께 장터 마당에서 독립 만세를 불렀다. 여름 한낮, 태극기 흔들며 기세껏 독립 만세를 불렀다. 재작년 겨울에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부터 아버지는 갑자기 집에서는 물론, 읍내에서 사라졌다. 사람을 피해 숨어 다니기 시작했다. 밤중에 살짝 나타났고, 얼굴을 보았다간 들킬세라 금방 사라졌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맡아 그러고 다니는지 어머니도 잘 모른다. 장터 마당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고 좌익질한다며 쭈군거렸고, 순경이 자주 우리 집을 들랑거렸지만, 재작년 겨울부터 누구도 아버지를 뵈는 사람이 없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아버지에 관해서 그 사연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숨어 다니는 아버지의 요술을 두고 사람들은 쉬쉬하며 귀엣말을 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읍내 유식꾼 이모부님조차 알면서모른 체하는지 입을 봉했다. 봄철이 되면 꽃이 피는 이유를, 꽃이 향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모르듯, 이세상에는 아직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아버지와 들로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다. 안개도 자우룩한 초여름 새벽이었다. 이슬에 바짓가랑이를 적시며 아버지와 나는 들길을 걸었다. 종달새가 새벽부터 하늘을 날며 맑은 소리로 울었다. 아버지는 풀잎에서 뛰어오르는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더니,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청개구리의 빛 고운 연두색 등판이 반들거렸고, 얇고 흰 뱃가죽이 팻딱거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요 꼬마 놈은 날마다 **높이뛰기 연습**을 한 단 말이야. 첫날은 반 뺨 정도 뛰지만 이튿날은 조금 더 높이 뛰거든. 한 달쯤 되면 한 뺨쯤 뛰고, 두 달쯤 되면 두 뺨을 뛰고, 그 다음다음 달은……. 그럼 나중에 **하늘에** 닿겠네요? 아니지, 하늘에 닿아 보려 뛰지만 하늘에 닿지는 못해. 왜냐하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깐. 그럼 청개

구리는 죽을 때까지 뛰겠네요? 그렇지, 죽는 날까지 날마다 높이뛰기를 하지. 왜 그런 연습을 해요? 그건 아버지도 몰라, **청개구리만 알겠지**. 아버지는 청개구리를 풀 앞에 다시 놓아주었다.

(중략)

……아흔아홉, 백. 나는 벌써 백까지 세었다.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장터 마당으로 가는 다리쪽에 눈을 준다. ㉠ **나무다리는 바다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사람이 지나갈 땐 **뼈 거덕 소리**를 낸다. 달구지가 지나갈 땐 **찌거덕거린다**. 다리 건너에서 만수 동생이 블록한 배로 혼자 제기차기를 한다. 녀석 집도 우리집만큼 가난한데 오늘 저녁밥은 오지게 먹은 모양이다. 블록한 배가 출렁거린다.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하고 생각해 본다. 어머니 말처럼 모두 아버지 탓이다. 아버지는 농사꾼이 아니요, 장사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월급쟁이도 아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 누나가 운다. 누나와 분선이가 쪽마루에 걸터앉아 있다. 누나는 집이 떠나가란 듯 큰 소리로 운다. 나는 엉거주춤 일어선다. 허리 굽혀 마당을 질러갈 때 다리가 떨린다. 장독대엔 벌써 어둠이 내렸다. 뒤쪽 ㉡ **대추나무는 귀신 풀**이다. 곱슬한 머리카락을 풀어 흘뜨린 게 **무섭기를 들게 한다**. 어두워진 뒤에 대추나무를 보자, 열흘쯤 전날이 떠오른다. 밤이 깊어 잠이 들었을 때였다. 담을 타 넘고 들어왔는지, 순경 둘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신을 신은 채였다. 순경은 소스라쳐 일어난 어머니 가슴팍에 장총부리를 들이대며 소리쳤다. **조민세 어디로 갔어? 이 방에 있는 걸 봤는데 금세 어디 갔나 말**이다. 이년아, 네 서방 어디 숨겼어? 순경은 어머니 떡살을 틀어쥐며 소리쳤다. 다른 순경이 어머니 허리를 건어찼다. 호각 소리가 집 주위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여러 순경이 집 안을 살살이 뒤졌으나, 끝내 아버지를 잡지 못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오지 않았다. 순경들은 애꿎은 어머니만 데리고 지서로 갔다. 어머니 머리카락을 잡아끌며 순경들이 떠나자, 우리 오누이는 갑자기 밀어닥친 두려움으로, 서로 껴안았다. 그날 밤, 누나는 내내 큰 소리로 울었다. ㉢ **누나의 울음이 무섭기를 덜어 주었다**. 누나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분선이와 나는 서로 **껴안은 채 밤새 소리 죽여 흐느꼈다**. 울기조차 못했다면 분선이와 나는 기절했을 거였다. 봉창이 환해질 때까지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울며 새운 그 밤의 두려움은 지독했다. 죽어 뿌리라, 어데서든 콧 죽고 말아 뿌리라. 나는 아버지를 두고 속말을 되씹었다. 순경들이 뜬금없이 한밤중에 밀어닥쳐 집 안을 뒤졌다. 그런 날 밤, 나는 아버지가 밋다 못해 원수로 여겨졌다. 이튿날, 학교 갈 생각도 않고 늘어져 누웠을때, 어머니가 지서에서 풀려났다. 이모님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다. 어머니 얼굴은 피멍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꺼져 가는 소리로 아버지와 순경을 두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제는 순경들이 집안으로 밀어닥치지 않을 거였다. 숨어 다니던 아버지가 수산리 장터에서 순경에게 잡혔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곧 총살당할 거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 집을 빨갱이 집이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추나무 뒤쪽 하늘은 짙은 ㉣ **보라색**이다. 나는 보라색을 싫어한다. 손톱에 들이는 봉숭아 꽃물도, 닭뿔같은 맨드라미도, 코스모스의 보라색 꽃도 싫다. 어머니 젓꼭지 색깔까지도 싫다. 보라색은 어쩐지 아버지가 바깥에서 숨어 다니며 하는 그 일과, 어머니의 **피멍 든 모습**을 떠올려 준다. 말라붙은 피와 **깜깜해질** 징조를 보이는 색깔이 보라색이다. 열은 보라에서 짙은 보라로, **세상의 모든 형체**를 어둠으로 지우다, 끝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 **밤**이 온다는 게 두렵다. 이 세상에 밤이 있음이 참으로 무섭다. 밤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나는 늘 그 땅에서 살고 싶다. 나는 환한 밝음 아래 놀다 그 밝은 세상에서 잠자고 싶다. 아버지는 어둠속에서 총살당할 것이다. 작년엔 지서로 잡혀간 젊은이들도 밤에 **총살당했다**.

- 김원일, 「어둠의 혼」

25.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하여 분단 상황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갈등 상황에 대한 전지적 서술자의 통찰력을 통해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 ③ 제한된 시선을 지닌 관찰자적 서술자를 통해 민족의 비극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의식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인 서술자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미성숙한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민족의 비극을 이데올로기 차원보다는 생활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2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 ②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순경들에게 고초를 겪었다.
- ③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 때문에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 ④ 아버지는 순경들을 피해 다니다 결국 순경들에게 잡혔다.
- ⑤ 마을 사람들은 재작년 겨울 이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27.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구멍이 송송 뚫'리고 '삐거덕 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나'의 불안정한 심리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 '귀신 꼴'을 하여 '나'에게 '무섭기를 들게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무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 분선이와 '서로 껴안은 채 밤새 소리 죽여 흐느꼈다'는 점에서 '나'가 느끼는 공포감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④ ㉣: '피멍 든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깜깜해질 징조'를 보이는 색깔이라는 점에서 암울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⑤ ㉤: '세상의 모든 형체'를 지우고, 그 시간의 배경에서 사람들이 '충살당했다'는 점에서 '나'에게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제에 의한 강점에서 해방된 직후, 우리 사회는 치열한 이념적 대립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긴 세월 일제에 의해 억압되었던, 사회적 이상에 대한 지식인들의 욕망은 해방 후 자신들만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사회적 진보를 이끌고자 하는 의지로 강하게 표출되었다. 그 의지는 때로는 맹목적인 것이 되어 다른 진영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지식인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희생되었다. [A]는 이와 같은 해방 정국의 시대상과 그 시대의 지식인이었던 아버지의 삶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청개구리가 도달하고자 했던 지향인 '하늘'은 사회적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②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하늘에 닿지 못하는 '청개구리'는 아버지의 운명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③ '죽는 날까지' 높이뛰기를 한다는 것은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군.
- ④ 매일 발전된 높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높이뛰기 연습'은 사회적 진보를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군.
- ⑤ 높이뛰기의 이유를 '청개구리만 알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필연적으로 다른 진영과 충돌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군.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숨 막히는 초조와 불안 속에 이윽고 도지사가 축사를 끝냈다. 나는 땀에 젖은 채 긴장으로 목이 졸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도지사가 방금 축사를 끝냈으니 다음은 동지들의 입에서 잔기침 소리가 들려올 차례였다. 불안과 초조 속에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 거사가 이제야 우렁차게 식장을 진동시킬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아무리 초조하게 기침 소리를 기다려도 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엄숙하고 고요할 뿐이었다. [A] 의아하고 불안한 나머지 나는 다시 눈을 들어 주위의 동지들을 훑쳐보았다. 이만큼 시간이 흘렀으니 동지들은 지금쯤 사방에서 기침들을 토해 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팔죽 같은 땀을 흘리며 하나같이 고개들을 숙인 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꾸중 듣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의 표정 속에는 공포와 불안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내 몸에서 갑자기 모든 불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목을 조르던 공포와 긴장이 뜻밖에도 아주 빠르게 안도와 기쁨으로 변해 가기 시작했다. 거사는 실패했다. 그리고 거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자, 실패가 오히려 아주 당연한 귀결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불안과 공포에 떠는 자신이 나는 이 순간 견딜 수 없이 우스꽝스러웠다. 지금까지 나를 짓눌러 온 온갖 불안에서 나는 불과 몇십 초 사이에 깨끗하게 해방된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나는 또 한 번 무서운 공포에 휩싸였다. 그것은 안도감에 잠긴 나를 몽둥이로 내리치듯이 통렬하게 후려쳤다. 누군가가 돌연 자리를 박차고 두 손을 높이 쳐들며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이었다.

㉠“조센 반자이(조선 만세)!” / 기범이었다. 그는 우렁차게 만세를 부른 후, 그대로 앞 좌석에 홀로 대뚝하게 서 있었다. 장내는 고요했다. 모든 시선이 기범에게 집중되었다. 학생들도 고관들도 헌병들조차도 넋 나간 표정으로 기범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볼 뿐이었다. 그것은 무서운 폭풍을 내포한 폭발 직전의 서늘한 침묵이었다. 침몰하는 배 위에 올라탄 듯한 한없이 낭패스러운 삭막한 침묵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아주 긴 시간인 것도 같고 아주 짧은 시간인 것도 같았다. 식장의 경비를 맡고 있던 헌병들은 이윽고 긴장된 표정으로 저마다 긴 칼자루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범이 또 한 번 소리치면 식장에서 당장에 그를 체포할 듯한 험악한 기세였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기범의 두 팔이 다시 번쩍 머리 위로 쳐들렸다. / ㉡“넛본 반자이(일본 만세)!”

침묵은 계속되었다. 헌병들은 칼자루에 손을 댄 채 여전히 기범을 쏘아보고 있었고, 기범은 이번에도 만세 후에 여전히 앞 좌석에 꼳꼳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아까와는 약간 성질이 달랐다. 식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는 긴장 대신에 묘한 의문에 사로잡혔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들에 놓여 있지만 그들은 기범을 향해 똑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너는 왜 조선 만세를 부른 후에 뒤따라 다시 일본

만세를 불렀는가? 너의 만세는 무슨 뜻인가? 너는 대체 어느 편인가? 그러나 이 의문도 뒤따라 곧 해답을 얻었다. 기범이 다시 두 팔을 쳐들고 제3의 만세를 외쳤기 때문이었다. / © “다이토아 반자이(대동아 만세)!”

식장을 지배해 온 숨 막히던 긴장은 이 세 번째 만세로 깨끗이 해소되었다. 그는 첫 번째 만세로는 동지들의 체면을 세워 주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만세로는 동지들을 위협에서 구해 준 것이다. 나는 사건이 끝난 한참 후에야 기범이 어쩌서 거사의 중임을 자청했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사전에 이미 거사가 실패할 것을 예견했고, 만일 성공할 기미가 보였다면 처음부터 거사를 실패시킬 목적이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기범은 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기침 소리가 들리더군. 그래서 난 계획대로 만세를 불렀지. 첫 번째 만세는 잘된 것 같은데 그 뒤의 만세들은 나두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었어. 동지들에게 면목이 없네. 나를 모두들 원망하구 있겠지?”

아무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고맙게 생각했다.

(중략)

일규는 기범과 부닥치자 가장 불길하게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럴듯한 음모였지만 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도둑놈아, 억지 쓰지 마라. 너는 **파렴치범**에 불과하지만 일규는 **전신으로 세상을 산 놈**이다. 아무리 네가 잡아 흔들어도 일규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천만에, 나는 안다. 그놈은 운 좋은 삼류 **무사(武士)**에 불과했다. 뽑아 본 일 없는 칼을 차고 질 수 없는 전쟁만 멋들어지게 해 온 놈이다. 나는 세상이 가장 혼탁할 때는 일규가 어디 있는지 본 일이 없다. 그놈이 칼을 뽑았을 때는 누군가가 위기를 제거해서 세상이 더없이 편안해진 후다. 이것이 바로 무사의 허풍스런 참모습이고 무사가 너희한테 존경과 사랑받는 소치인 것이다.”

[B] “너는 그럼 그런 일규를 왜 허공에서 찾은 거냐? 왜 일규가 없어진 지금 살맛이 없다구 하는 거냐?”

“세상은 주인이 필요하다, **광대 같은 주인** 말이다. 무대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무대를 비워 둘 순 없지 않냐? 내가 일규를 필요로 하는 건 그 녀석이 무대 위에 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간판 구실을 잘 해내기 때문이다.”

“좋다, 네 쪽은 그렇다 치자. 허지만 일규 쪽에서는 왜 너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냐?”

“무사가 칼을 차고 지나가면 그 뒤엔 그를 칭송할 **악사(樂士)**가 필요한 법이다. 칼이 허리에서 절그럭거려서 무사는 자기 입으로는 자찬의 노래를 읊을 수가 없다. 악사는 바로 이런 때를 대비했다가 무사의 눈짓이 날아올 때 재빨리 악기를 꺼내 황홀한 음악을 탄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사와 악사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사

이 좋게 살아가는 우정이다.”

- 홍성원, 「무사(武士)와 악사(樂士)」

2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B]는 대화를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관찰자적 시점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B]는 전지적 시점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③ [A]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고, [B]는 대화를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 해소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A]는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이 행동하지 않은 이유를 드러내고 있고, [B]는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B]는 서술자의 제한된 시선으로 상황에 대한 추론적 해석이 더해지고 있다.

30. 윗글에서 기범이 부른 ‘세 번의 만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기범이 하도록 동지들과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행동이다.
- ② a~c의 연속을 하나로 보면 일제에 찬동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 ③ a와 b 사이의 침묵이 낭패의 의미라면 b와 c 사이의 침묵은 의문의 의미이다.
- ④ 동지들은 기범이 a만 외치고 b와 c를 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 ⑤ 기범이 b와 c 없이 a만 외쳤다면 기범과 그 동지들은 위협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무사와 악사」는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지식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대중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부조리한 시대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내던져 투쟁하는 지식인들의 고귀한 모습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낸다. 하지만 지식인임을 표방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속으로는 개인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언급된 ‘무사’와 ‘악사’는 이런 위선적 지식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 ① ‘나’는 기범을 ‘파렴치범’이라 지칭하면서 그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위선적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군.
- ② ‘나’는 일규를 ‘전신으로 세상을 산 놈’이라고 지칭하면서 그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③ 기범은 일규를 ‘무사’로 지칭하면서 그가 일제 강점과 해방정국의 혼란함 속에서 정의로운 투쟁을 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군.
- ④ 기범은 일규를 ‘광대 같은 주인’이라고 지칭하면서 그가 허풍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군.
- ⑤ 기범은 자신을 ‘악사’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이 일규가 하는 일을 돕고, 그가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는 데 기여한 존재임을 항변하고 있군.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모님. 내 뽀아 드린 견적서 좀 쥘 보세요. ㉠돈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 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 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엮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 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사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예,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 씨가 불펜 심으로 쿡쿡 찢러 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뼈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칠만 원이면 되겠습니까요.”

선언하듯 임 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칠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칠만 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 봐요. 처음에는 십팔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 해 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써비스로다가…….”

“써비스?”

그는 아연해서 임 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써비스할 때는 써비스도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토끼띠이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 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저는요, 받을 것 다 받은 거니까 이따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임 씨는 아내가 내민 칠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일 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내려가면서 임 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써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 그는 자신의 집수리를 마친 임 씨와 함께 동네 형제 슈퍼에서 맥주를 마시게 된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임씨가 스웨터 공장주에게 연탄값 8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정과 연탄값을 떼먹은 공장주가 가리봉동에 큰 공장을 차렸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임 씨는 술에 취한 채 떼인 돈 80만 원을 받으려 일감이 없는 비 오는 날이면 가

리봉동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형씨,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소. 토끼띠면 어쩔 거여.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저런 것도 집 측에 끼나…….”

이번엔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 씨의 말에 가로채여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난 말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요, 보증금 백오십만 원에 월세 삼만 원짜리 ㉞지하실 방에서 여섯 식구가 살고 있소.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아파트요, 맨션아파트!”

임 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꼭 맨손아파트처럼 들렸다.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구.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대가지, 나는 나대로 이 짓 해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임 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는 선뜻 임 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돌고 도는 돈 본 놈 있음 나와 보래! 우리 같은 신세는 평생 이 지랄로 끝장이야.

돈? 에이! 개수작 말라고 해.”

임 씨가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다. 그 바람에 기우똥거리던 맥주병이 기어이 바닥으로 나뒹굴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㉞“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야!”

임 씨의 기세에 놀려 그는 또 말을 뱉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중에는 임 씨 역시 맨션아파트에 살게 되고 달걀 프라이 짬뽕 먹여줘서, 곰국은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갖은 음식 타박에 비 오는 날에는 양주나 찢끔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천 번 만 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그는 임 씨의 핏발 선 눈을 마주 보지 못하였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며 손해 볼까 두려워 궁리를 거듭하던 꼴을 눈치채이지는 않았는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 버리는 느낌이었다. 제아무리 탄탄해도 라면 가닥으로 유지되는 사내의 몸뚱이는 술 앞에서 이미 제 기운을 잃고 있음이 분명했다. 임 씨의 몸이 자꾸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점차 술이 깨고 있었다.

“어떤 놈은 몇 억씩 챙겨 먹고 어떤 놈은 한 달 내내 뼈품을 팔아도 이십만 원 벌이가 달랑달랑한데, 외제자가용 타고 다니며 꺼덕거리는 놈, 룬싸롱에서 몇십만 원씩 팀 뿌리는 놈은 무슨 재주로 그리 사는 거야? 죽일 놈들. 죽여! 죽여!”

임 씨의 입에 거품이 물렸다.

“비싼 술 잡숫고 왜 이런당가요, 참으시오. 임 씨 아저씨. 쪼매 참으시오.”

김 반장이 냉큼 달려들어 빈 술병과 잔들을 챙겨 갔다. 임 씨는 탁자에 고개를 처박고서 연신 죽여, 를 되뇌고 그는 속수

무책으로 사내의 빛바랜 얼굴만 쳐다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죽일 놈들’ 속에는 그 자신도 섞여 있는 게 아니냐는, 어쩔 수 없는 괴리감이 사내의 어깨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32.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의 진행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들을 제시한 후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조명하여 인물들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속의 인물인 서술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직접 겪은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사건의 정황과 그에 대한 인물의 내면 심리를 함께 보여 주고 있다.

33. ㉠~㉞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와 ‘그’의 아내가 임 씨의 말에 긴장하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예상과 다른 상황에 대해 ‘그’가 느끼는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그’의 아내 역시 임 씨를 정직한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 ④ ㉣: 임 씨가 ‘그’보다 자신이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 ⑤ ㉤: 쉽게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임 씨의 절망을 부각한다.

3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 간의 배려를 반영하는 소재이고, ㉡는 인물 간의 반목을 암시하는 공간이다.
- ② ㉠은 인물 간의 연대를 매개하는 소재이고, ㉡는 인물 간의 소통이 비롯되는 공간이다.
- ③ ㉠은 인물 간의 갈등을 증폭하는 소재이고, ㉡는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④ ㉠은 인물이 지닌 재력을 상징하는 소재이고, ㉡는 인물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⑤ ㉠은 인물에 대한 오해 해소에 기여하는 소재이고, ㉡는 인물의 상황을 통해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는 공간이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공감의 플롯’을 가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감의 플롯’이란 등장인물이 처음에는 타인을 불신하고 이질감을 느끼다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거나 자신과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점차 타인에 대해 공감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플롯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 변화, 즉 등장인물이 처음에 가졌던 이질감이 공감과 이해로 전이되는 과정이다. 이때의 공감과 이해는 단순한 동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태도를 돌아보는 성찰과 같은 윤리적 태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타인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①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모습에서, ‘그’가 임씨에 대해 불신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수고했다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씨비스’에 대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임 씨의 진실한 태도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임 씨의 내력과 ‘가리봉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그’가 ‘임 씨의 핏발 선 눈을 마주 보지 못하’는 모습에서, 임 씨에 대한 ‘그’의 공감과 이해가 다시 이질감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천 번 만 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자신 또한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그’에게 임 씨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술 취한 임 씨를 보며 ‘죽일 놈들’ 속에 ‘자신도 섞여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그’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적 자세를 바탕으로 임 씨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만수의 조부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개운리에 서 숨어 살게 되고, 만수의 부친은 힘들게 농사지으며 살아간다. 만수의 형인 백수는 대학에 진학하고, 돈을 벌려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는다.

너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었다. 너는 ㉠금강석처럼 단단한 심신에 가족이 너 때문에 무엇을 희생할까 염려해 혼자 힘으로 입신하려는 의지로 뭉쳐 있었다. 그런데 그토록 강건하던 네가 왜 이국에서 ㉡풍토병으로 죽는단 말이나.

군인이라면 전장에서 총검으로 생사를 결하고 눈먼 포탄에 혹 사지가 결판이 나는 수가 있다. 전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으로 적탄 앞에 몸을 던질 수도 있다. 그렇게 죽어 간 많은 병사들, 장군도 장교도 아니고 이름 없는 수많은 소모품으로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이겨진 존재라고 한다면 억울한 중에도 이해를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한 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니, 전장에서 죽지 못하고 병원에서 죽었다고 명예로운 죽음으로도 치지 않는 병사라는 걸 어찌 믿으란 말이나. 너의 불쌍한 부모를 어찌하느냐. 너의 가련한 아우들을 어찌하느냐. 짐승과 초목들도 호곡하는구나. 비바람도 슬프게 흐느끼는구나. 온 식구들이 울고 온 집안의 생명이 울고 온 마을이 울고 땅이 울었다. 아, 하늘이시여, 어찌 늙은 내게 이런 참혹한 슬픔을 주시나이까. 어서 나를 데려가소서. 나를 죽이소서. 내 뼈를 꺾어 바수고 불로 남김없이 태워 재를 만들고 지옥의 바람에 날리소서. 나를 죽이소서. 제발 나를 죽이고 우리 모두의 백수를, 귀하디귀한 금강석을 돌려주소서.

안녕하십니까. 고엽제 피해자 가족 준비 모임입니다. 오늘은 고엽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중 미국은 베트남의 은둔지와 무기 비밀 수송로로 이용되어 온 정글을 제거하고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 또 베트남 경작지의 농작물 제거를 위해 1962년에서 1971년까지 33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에 고엽제를 살포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 경작지의 15퍼센트, 전 삼림의 3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고엽제는 미 재향 군인회 추산 약 8,360만 리터,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추산 9,100만 킬로그램이 살포되었습니다. 고엽제를 지상에서 사람이 직접 뿌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군은 헬기 등을 통한 공중 살포를 훨씬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인간의 손에 의해 직접 가루 형태로 구석구석 효과적으로 뿌려졌으니 그 인간 중에 상당수가 한국군이었습니다.

(중략)

할아버지는 평생 술 한잔을 마신 적이 없었다. 한 방울의 알코올조차 할아버지에게는 소화시킬 수 없는 독이었다. 그런데 오빠의 죽음을 전해 준 우체부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왔다. 늘 병석에 누워 있다시피 하던 할아버지가 동네 어귀에 있는 유태

백내 집까지 가서 그 집 ㉠소주를 얻어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전해 주러 온 것이었다. 온 식구가 울고 있는 중에도 누군가는 할아버지를 모시러 가야 했다. 만수를 데리고 일어섰다. 할아버지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할아버지는 “백수야, 백수야, 이제 네 부모를 어찌하느냐. 불쌍한 어린 동기들을 어찌하느냐. 내 어찌 사느냐.” 하며 우셨다. 집으로 들어서서 방에 눕혀 드리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만수를 앞에 불러 앉혔다.

“이제는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할아버지는 만수의 머리통을 끌어 당신의 주름투성이 이마에 만수의 이마를 맞댔다.

“네가 형을 대신하여 집안을 지켜야 한다. 비 새는 천장, 연기 솟는 방바닥 같은 **네 부모를 떠받치고** 수숫대 담벼락과 같은 **형제를 이끌어** 줘야 한다. **형이 없는 빈자리를 채울** 사람은 만수야, 오로지 너뿐이다. 내 말을 알겠느냐.”

만수는 떨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뭇가지처럼 영성하고 비쩍 마른 몸에 믿고 의지할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다 같이 부축을 하고 왔건만 여자인 나는 그저 우는 일밖에 없는 것같이 여겨졌다. 기분이 이상해서 돌아보니 석수가 어두운 마당 한 칸에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다.

㉡기둥이 부러지고 쓰러져 가는 일밖에 남지 않은 집구석에 새 기둥이 무슨 소용이며 천장은 뒹고 바닥은 뒹가. **남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족속들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울었다.

대학에 다니던 **형이 월남에 갔다가 한 줌 재가 되어 돌아온** 이후 우리 집은 납덩이 같은 침묵에 둘러싸였다. 형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금기시되었다. 월남이나 군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하늘로 가고 없는 형은 우리 육 남매 중 유일하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 사람이었고 남아 있는 우리는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서로를 무기력하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병환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 있기만 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간호하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만 했고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으나 자나 깨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달랐다.

저녁에는 어두워져도 불을 켜지 않았다. ㉢석유를 사 오곤 하던 형이 생각이 나서인지 아버지가 불을 켜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말없이 저녁을 먹은 우리는 숙제도 하지 못했다. 하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상처를 핏물처럼 각자 웅크리고 바람 소리 같은 한숨과 신음을 내뿜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뭘 하나. 형은 공부를 잘했다. 아는 것도 많았다.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었다. 효도를 하면 뭘 하나. 형은 어떤 집에서도 부러워하던 효자였고 모범적인 아들이고 모범적인 손자였다. 글을 잘 쓰면 뭘 하나. 형은 국민학교 때부터 백일장에 나가서 빠짐없이 상을 타 왔다. 어디에 가든 일기를 썼고 편지도 잘 썼다.

[A] 실험도 잘했고 호기심도 많았다. 동생들한테 잘해 주면

뭘 하나. 형은 누나들이나 만수, 옥희한테 그럴 수 없이 다정하고 살뜰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었다. 글이며 노래, 바둑, 한글을 가르쳐 주고 하모니카를 사 주고 책을 읽게 했다. 나무 이름, 풀이름, 별자리를 가르쳐 주었다. 어릴 적부터 식구들을 대표해 아버지한테도 할 말을 했다.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 마침내 밤하늘에 올라가 영원히 변치 않고 빛나는 별이 되어 버렸다.

형은 특하면 꿈에 나타났다. 형은 군복을 입고 혼자 베트콩 일개 연대를 무찌르고 무공 훈장을 탔다. 고시에 패스해서 판사가 되었고 나를 한심한 놈이라고 판결했다. 부모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면서 그 기대를 배신하면 감옥에 처넣고 굶겨 죽일 것이라고 했다. 형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서 뼈라를 뿌렸다. 금빛 뼈라가 공중에서 날아 내리는 것을 보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뛰어갔다. 형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날아갔다. 알약을 보여 주면서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굶어도 된다고 했다. 형을 볼 때마다 약이 올랐다.

[B] 점점 집이 싫어졌다.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게 무섭고 싫었다.** 내가 날이 이속하도록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 가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관심도 없었다.

- 성석제, 「투명 인간」

36.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일생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회화화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차시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 특정한 상황에 대한 각 서술자의 입장이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37. 문맥상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백수의 내면과 외면이 강인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② ㉡: 백수가 베트남에서 전투 중에 전사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 ③ ㉢: 할아버지가 느끼는 슬픔과 괴로움의 깊이를 부각한다.
- ④ ㉣: 집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할아버지의 노고를 상징한다.
- ⑤ ㉣: 밤이 되어도 불을 켜지 않는 이유가 백수와 관련된 것임을 드러낸다.

3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에는 모두 대상의 우월한 면모가 언급되어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대상의 특정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나열하고 있다.
- ③ [A]와 달리 [B]에는 대상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의 서술이 포함되어 있다.
- ④ [B]와 달리 [A]에는 대상의 행위로 인해 유발된 두려움이 부각되어 있다.
- ⑤ [B]와 달리 [A]는 대상이 실제로 보여 주었던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투명 인간」은 지식인 조부와 그의 아들 및 만수를 비롯한 손주들의 삶을 통해 현대사의 굴곡진 여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 공동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만수의 모습과, 무기력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가족과 개인에게 부과했던 가혹한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인물들이 겪는 사건이 어느 개인의 특수한 체험이 아니라 한국인이 공유하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공동체적 이야기임을 보여 주며, 타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윤리가 통용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① 전쟁터에서 죽어 간 병사들을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이겨진 존재’라고 표현하거나, 백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짐승과 초목들도 호곡하는구나.’라고 표현하는 장면에서 만수 조부가 굴곡진 현대사를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② 할아버지가 만수에게 ‘부모를 떠받치고’, ‘형제를 이끌고’, ‘형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할 때, ‘만수는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장면에서 만수가 가족 공동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것임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형의 죽음으로 인해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서로를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상처를 핏물 짐승처럼 각자 웅크리고 바람 소리 같은 한숨과 신음을 내뿜’는 장면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가족과 개인에게 부과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④ ‘베트남 전쟁 기간 중’ ‘고엽제를 지상에서’ ‘직접 가루 형태로 구석구석’ 뿌린 ‘인간 중에 상당수가 한국군이었습니다.’라는 장면에서 ‘형이 월남에 갔다가 한 줌 재가 되어 돌아온’ 사건이 한국인이 공유하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성격의 이

이야기임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남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족속들이다.’라고 생각하며 울고,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게 무섭고 싫’다고 느끼는 장면에서 타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윤리가 통용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음력 선달 열여드레인 할아버지의 제사에 맞추어 고향인 제주에 내려간 ‘나’는 친척인 **순이 삼촌***이 얼마전 삼촌 자신의 옴팡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 소식을 계기로 **제삿날**에 모인 **집안 어른들**은 ‘나’의 어린 시절에 벌어진, 순이 삼촌의 죽음과 관련 있는 **30여 년 전의 양민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기분 같아선 은연중에 서청*을 변호하는 고모부를 면박 주고 싶었지만 꼭 눌러 참았다. 그래도 내 말은 약간 서슬져서 나왔다.

“고모부님, 고모분 당시 삼십만 도민 중에 진짜 빨갱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했수파?”

“그것사 만 명쯤 되는 비무장 공비 빼 부리면 얼마 되여? 무장 공비 한 3백 명쯤 되까?”

이 말에 나도 모르게 발끈 성미가 났다.

“도대체 비무장 공비란 것이 뭐우파? 무장도 안 한 사람을 공비라고 할 수 이서 마썸?” 그 사람들은 중산간 부락 소각으로 갈 곳 잃어 한라산 밑 여기저기 동굴에 숨어 살던 피난민이우다.”

나의 반박하는 말에 고모부는 의외라는 듯이 흠칫 나를 바라보았다.

“그건 서울 조개 말이 맞아. 나도 직접 내 눈으로 봤쥬. 목장 지대서 작전 중인데 야기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덤불 속을 헤쳐 수색해 보난 동굴이 나왔는디 그 속에 비무장 공비 스무남은 명이 들어 있지 않아여.”

“비무장 공비가 아니라 피난민이라 마썸.”

[가]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고모부의 말을 수정했다.

“맞아, 내가 말을 자주 실수해점져. 그뎌 산에 올라간 사람은 무조건 폭도로 봤이니까. 하이간 굴속에 있는 사람은 영 행색이 말이 아니라서. 굶은 피골이 상접헌디다가 한겨울에 젖은 미녕옷 한 벌로 몸을 가리고 떨고 있는데, 동상 걸려 발구락 모지라진 사람도 더러 있었쥬. 소위 비무장 공비란 것이 이 모양으로 동굴 속에서 비참한 꼴로 발견되니까 냉중엔 상부에서도 생각을 달리 쓰게 되어서. 구호물자를 준비한 갱생원 차려 놓고 선무 공작을 썬쥬. 엘 파이프(L-5) 연락기로 한라산 일대에 전단을 뿌려 투항을 권고하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떼 지어 귀순자들이 내려와서라.”

“바로 그것입쥬. 선무 공작은 왜 진작에 쓰지 못했느냐는 말이우다. 처음부터 선무 공작을 했으면 인명 피해

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거라 마썸. 폭도도 무섭고
군경도 무서워서 산으로 피난 간 양민들을 폭도로 간주
했이니…….”

“겔세 말이여. 대유격전이란 것이 본디 정치 7에 군사 3인
데…… 이걸 정치는 쥐뿔도 없고 무작정 군사행동만 했이
니…… 창설 일 년도 못 된 군대니 오죽할 것고…….”

[A] 아, **떼죽음**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의 가
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군경
전사자 몇백과 무장 공비 몇백을 빼고도 3만 명에 이르
는 그 막대한 주검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사를 치르려면
사기그릇 좀 깨지게 마련이라는 속담은 이 경우에도 적
용되는가. 아니다. 어디 그게 사기그릇 좀 깨진 정도냐.
아, 멀리 육지에서 바다 건너와 그 자신 적잖은 희생을
치러 가면서 폭동을 진압해 준 장본인들에게 오히려 원
한을 품어야 하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인연인가.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가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군
지휘관이나 경찰 간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머문 채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리라고 섬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설불
리 들고나왔다간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고발할 용기는
커녕 합동 위령제 한번 떳떳이 지낼 뱃심조차 없었다. 하도 무
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
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다만
합동 위령제를 한번 **떳떳하게 올리고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들을 진혼**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해자가 쉬쉬해서 30
년 동안 각자의 어두운 가슴속에서만 갇힌 채 한 번도 떳떳하
게 햇빛을 못 본 원혼들이 해코지할까 봐 두려웠다.

[B] 선달 열여드레 그날 해 질 녘이 다 되어서 군인들이
두 대의 스리쿼터에 분승해서 떠난 다음에도 마을 사람
들은 그대로 운동장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조희대 뒤
우익 가족이 있는 데로 몰려 살아남은 가족끼리 서로 불
안고서 마을에서 들려오는 타 죽는 소 울음보다 더 질긴
울음을 입에 물고 있었다. 내 입에서도 겁먹은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운동장의 진창
흙은 함부로 내달린 스리쿼터 바퀴 자국으로 여기저기
무섭게 패어 있고, 벗겨진 만월포 고무신짝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다. 그 위로 불타는 마을의 불빛이 밀려와 땅
거죽이 붉게 물들었다. 교실 창이 이내 벌게졌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하늘 가득히 붉은 노을처럼 번져 가는 불
기운에 **압도**되어 더욱 서럽게 곡성을 올릴 뿐 누구 하
나 울타리끼로 가서 **불타는 마을을 직접 내려다보려는**
사람은 없었다.

(중략)

그날 밤 사람들은 한기를 피해 모두 한 교실로 몰려 들어가
서로 불안고 밤을 지새웠는데, 밤중에 우리들은 두 번 호되게
놀랐었다. 한 번은 마을에서 대밭이 타면서 마구 터지는 폭죽
소리를 총소리로 잘못 알고 놀랐고, 또 한 번은 죽은 줄만 알
았던 순이 삼촌이 살아 돌아와 밖에서 유리창을 두드렸을 때였
다. 삼촌은 밤이 이슬해진 그때까지 **시체 무더기** 속에 파묻혀
까무러쳐 있었던 것이다. 교실 안에 들어선 당신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접근하려 들지 않았다. 길수 형이 가서 소매를 잡
고 끌어도 막무가내로 뿌리치고 저만치 홀로 떨어져 웅크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울지도 않았다. 두 아이를 잃고도 울
음이 나오지 않은 것은 공포로 완전히 오관이 봉쇄되어 버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마 울음은 공포가 물러가는 며칠 후에야
득이 터지듯 밀려 나올 것이었다.

- 현기영, 「순이 삼촌」

*삼촌: 제주도에서 가깝게 지내던 친척을 성별에 상관없이 부르던 명
칭.

*서창: 서북 청년단의 줄임말. 월남한 청년 단체가 조직한 우익 청년
운동 단체.

*생각했수파?: 생각합니까?

*마썸?: 말입니까?

40.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양민들’이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 ‘폭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고모부의 견해는 ‘나’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③ 고모부는 ‘나’의 견해를 수용하여 ‘비무장 공비’를 ‘피난민’으로 수정하여 지칭하고 있다.
- ④ ‘산으로’ 간 ‘양민들’을 ‘나’와 다르게 언급하는 고모부의 표현이 ‘나’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 ⑤ ‘나’가 생각하는 ‘피난민’과 고모부가 말하는 ‘비무장 공비’가 처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은 차이가 있다.

41.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나’의 내적 독백에 가까운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 ② [B]는 ‘나’가 [A]와 같이 판단하게 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 ③ [A]는 영탄적 표현을 통한 ‘나’의 감정이, [B]는 색채 이미지를 통한 사건의 비극성이 부각되고 있다.
- ④ [A]는 ‘나’가 사건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의 생각을, [B]는 ‘나’가 발생 당시의 사건의 정황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A]는 사건을 겪은 인물의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B]는 사건을 겪지 않은 인물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가 주로 나타나 있다.

- ④ ‘불기운에 압도’된 마을 사람들이 ‘불타는 마을을 직접 내려 다러는’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은 심리적 외상의 정도가 기존의 인식 구조를 넘어설 정도로 매우 컸기 때문임을 알 수 있군.
- ⑤ ‘시체 무더기 속에서 혼자 살아 돌아왔던 ‘순이 삼촌’의 죽음이 ‘30여 년 전의 양민 학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 트라우마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역사적 트라우마란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집단이 느끼게 되는 상실감을 뜻하는 말로, 기존의 인식 구조를 넘어서는 극도의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먼저 피해자들이 금기시되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외적·공식적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애도의 행위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경험과 기억을 역사의 기록물로 재정립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후세대가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순이 삼촌」은 해방 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순이 삼촌’으로 상징되는 다수의 제주도민에게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은 제주 4·3 사건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가는 「순이 삼촌」을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의 형상화와 그에 대한 치유책 제시 등을 문학적으로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① ‘순이 삼촌’이 깊은 상실감을 가진 다수의 제주도민을 상징한다는 것을 통해 그녀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개인의 차원이 아닌 집단의 문제임을 알 수 있군.
- ② ‘나’와 ‘집안 어른들’이 ‘제삿날’에 모여 마을의 ‘떼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외적·공식적으로 증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합동 위령제’를 ‘떳떳하게 올리고’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인 ‘위령비’를 통해 ‘억울한 죽음들을 진혼하자는 것’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소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